『동광』의 시조 연구

안 영 길 *

〈국문초록〉

일제 강점기 간행된『동광』잡지에 게재된 시조를 분석하여 당대 시조의 특징과 문화현상을 파악하려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순서로 진행하였다.

『동광』에 게재된 시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①임에 대한 정한의 표출 ②역사 회고 ③농촌의 정취 ④思鄕 ⑤삶에 대한 성찰과 각오 ⑥신의에 대한 성토 ⑦이별의 정한 ⑧계절 예찬 ⑨귀전원과 정감 등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당대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주제로 선별하면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통계적 기준(작품 수)과 당대 시대상(일제 강점기)을 고려해서 나눈 것이다. 즉 농촌의 정취, 귀전원과 정감, 역사 회고 등이다.

먼저 농촌의 정취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정감서린 농촌의 정경을 읊조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고나면 남는 것이 없는 소작농의 궁핍한 생활을 토로하고 있다. 또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농촌 특유의 정감을 유감없이 그려냈다. 다음으로 귀전원과 생활의 정감에 관한 것을 담고 있는데, 전원에서의 정취와 낭만을 노래했다. 즉 1930년대는 전원으로 돌아가는 사회 현상을 시조문학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先景後情의 작법을 활용하여 쉽고 평탄하게 내용을 전개하였으며 이따금 탈속적 정취를 노래했다. 또 도연명의 '採菊東籬下'의 배경을 활용하고 농촌 정착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 회고 시조인데, 현실에 움추린 조선인들을 일깨우기 위해 위국충절과 호연지기를 노래했다. 그리고 여전히 국권회복의 가능성을 갈망하고 있다. 특히 종장에서 밑줄 처리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종래에 없던 새로운 시조의 작법을 보여주기도 했다. 역사 회고 시조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반감을 전제한 것이며, '애달프다'라는 시어는 당대를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심정을 압축적으로 대변한 것이다. 1930년 이후는 시조는 이전의 감성적 낭만적인 시조와 달리 논리적이고 사회문제를 전달하려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 즉 기존의 음악적 요소나 감정에 호소하는 성향보다는 이치적이고 산문적 성향을 갖고 있다.

* 성결대학교 교수

『東光』의 시조를 통해 당대의 시의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우리 문학의 전통성과 정감을 여전히 발산하고 있는 시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시조, 농촌의 정취, 귀전원과 정감, 역사회고, 반영, 시의성

Ⅰ. 서론

시조 담론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20세기 이전은 주로 문집과 가집에 실렸으나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각종 신문과 잡지 등이 나타남에 따라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기 시작한다.[1] 또 그간 학계에서 김동준의 시대구분대로라면 1925-1930년을 시조연구사 1기라고 규정했고, 1931-1945년을 2기라고 했다.[2] 특히 2기는 심미적 논의가 지배적이었던 1기와 달리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적용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조의 변혁을 추구하던 시대에 시조의 추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20세기 이전의 노래(歌)의 기능과 20세기 이후의 문학적 경향의 시(詩)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도 고려할 항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東光』에 게재된 시조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즉 시기적으로 1기와 2기에 걸쳐있고, 내용면에서 일제 강점기를 고려할 때 노래(歌)보다는 시(詩)로서의 스토리에 비중이 있다. 따라서 두 시기에 걸쳐 있는 동광의 시조를 고찰하는 것은 짧은 시기에 시조의 변이를 살피는데 매우 긴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1920-1930년 식민지 시기의 시조를 고찰한 이형대의 연구가 나올 정도였다.[3] 또 한편으로

1) 배은희, 「1930년대 시조담론 고찰」, 『시조학논총』 38집, 2013, 50쪽.

2) 김동준, 「시가문학의 연구사론」, 『한국시가의 원형이론』, 진명문화사, 1996. "1925-1930년을 부흥이론기로 규정했고, 1931-1945년을 연구모색기로 설명했다."

3) 이형대, 「1920-1930년 시조의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고시가연구』 21집, 고시가연구학

시조 부흥운동의 영향이 어디까지 지속되고 영향을 끼친 지도 관심의 대상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東光』은 시기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즉『東光』은 시기적으로는 1926년 5월 20일 창간하여 1933년 1월 13일 통권 40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1926년 5월 창간호에서 1927년 8월호까지만 발행했다가 3년 동안 휴간을 거쳐 1931년 1월에 속간해서 1933년 1월에 1, 2월 합병호를 내고 폐간했다. 기간으로는 7년이며 실제 발행은 3년 2개월에 걸쳐 일제 강점기의 문화 현상을 담아낸 자료이다.『동광』은 인격수양과 문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국독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민족지의 성격을 가진다. 이런 가운데 창간호에 주요한의 시조가 게재되었으며 39호에 趙宗玄의 시조를 담고 있다. 실로 일제 강점기 동안 시조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으며, 근대 시조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긴요하다. 이에 본고는 두 시기에 걸쳐진『東光』의 시조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며 내용적으로 노래보다는 스토리로서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일제 강점기란 점을 고려하면 시조 주제의 다양성이나 대중화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東光』에 꾸준히 게재되었고, 또 문학 장르의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조에 대한 고찰은 필연적이다. 물론『東光』에 게재된 시조가 일제 강점기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을 착안하여『東光』의 시조에 대한 연구는 '시조부흥론'을 중심으로 이미 고찰한 것이 있다.[4] 이것은 시조가 비록 일제 강점기였지만 그 나름의 명맥을 유지하고 일정 장르로서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

회, 2008.

4) 강영미,「배재의 논리로 구축된 '시조부흥론'-조선문단과『東光』수록 시조를 중심으로」,『한국시학연구』39호, 2014.

다. 한편 근대로 이행되면서 시조가 시의 위치에 자리 잡으면서 종래 歌의 입장에서 함께 논의되었던 음률・강조・음향 등의 음악적인 용어와 결별하고, 시를 논의하던 용어인 意・語・調 등의로 대체하게 된다.[5] 물론 이런 점이 있지만 일제 강점기의 시조가 음악성을 완전히 배재한 것은 아니며 시조이면서 시의 意・語・調 등이 어느 정도 흡수하여 전개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東光』에 게재된 일제 강점기 시조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서 시조의 추이를 규명하고 문학사적 의의도 나름 부여하려 한다.

Ⅱ. 시조의 내용적 분류와 특성

문학 작품이 특정한 주제로만 창작되지 않듯이『東光』에 게재된 시조 역시 몇 개의 주제로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일제 강점기의 엄격한 검열과 통제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주제가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주제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진 몇 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대상을 반영하고 당대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특화된 주제를 살피면 강점기 시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東光』에 게재된 시조 전체를 내용별로 대별해 보았다.

1. 시조의 내용적 분류

호	발행년월	제목	내용
1	1926.5	발자취(주요한)	연정과 성찰
2	1926.6	낙동강을 나려다 보면서(한샘)	낙동강의 서경

5) 박미영,『한국시가론과 시조관』, 박이정 2006, 598쪽.

3	1926.7	없음	
4	1926.8	단군굴에서 동물원에서	단군굴에서: 단군 추모 동물원에서: 새와 학에 대한 예찬
5	1926.9	없음	
6	1926.10	江西三墓에서(최남선) 고시조 2수(최영, 김종서)	역사회고
7	1926.11	없음	
8	1926.12	고시조 2수(禹卓, 李廷蓋) 思鄕((曺雲)	고시조: 歎老 思鄕: 고향 생각
9	1927.1	새해(주요한), 가신 님(정인보)	새해: 신년의 각오 가신 님: 임에 대한 애한
10	1927.2	없음	
11	1927.3	해(曺雲) 고향으로 돌아갑시다(가람)	해에 대한 묘사 귀향권유
12	1927.4	없음	
13	1927.5	오월 폭풍우의 마음(李隱想) 신부(주요한)	오월: 계절예찬 폭풍우의 마음: 울분 신부: 그리움
14	1927.6	없음	
15	1927.7	古宮短詠(詩牧)	역사회고
16	1927.8	없음	
17	1931.1	城北春懷(趙宗玄), 도라다 뵈는 길(曺雲)	城北春懷: 역사회고 도라다 뵈는 길: 이별의 정한
18	1931.2	朴淵行(정인보)	박연폭포 견문
19	1931.3	눈오시는 밤(조종현)	설경
20	1931.4	漢江水(조종현)	한강의 유구성 예찬
21	1931.5	없음	
22	1931.6	없음	
23	1931.7	普信閣鐘(趙宗玄) 六月(힌솔)	普信閣鐘: 역사회고 유월: 계절예찬
24	1931.8	없음	
25	1931.9	그러구로 가련가 나의 어머니(趙宗玄) 扶餘行(金雪崗), 雨後又頌(金壽泳)	그러구로 가련가: 신의에 대한 성토 나의 어머니: 효도 扶餘行: 역사회고 雨後又頌: 전원 예찬
26	1931.10	錦江月夜(失名氏)	錦江月夜: 경물

		候蟲微吟(李鐸) 애닯은 추억(趙宗玄) 山居雜詠(太白山人)	候蟲微吟: 계절의 정감 애닯은 추억: 이별의 정한 山居雜詠: 전원의 정취
27	1931.11	어머니의 다지는 말씀(조종현)	수신
28	1931.12	歲暮의 江山(조종현)	歲暮의 정회
29	1932.1	없음	
30	1932.2	전원에 가시는 이(春園), 송도기행(李鐸)	전원에 가시는 이: 전원예찬 송도기행: 역사회고
31	1932.3	없음	
32	1932.4	없음	
33	1932.5	胡風異域 이 땅의 형제여(조종현)	胡風異域: 만주의 동포 위로 이 땅의 형제여: 근면생활권고
34	1932.6	東方의 光明(조종현)	동방에 대한 예찬과 바램
35	1932.7	隨感短吟(早春, 雨後, 燈油, 시계의 태엽을 감으면서)(李鐸)	일상의 감상
36	1932.8	비를 맞고 찾아온 벗에게(조운)	우정
37	1932.9	주인은 어데로(조종현)	집 떠난 주인에 대한 감회와 민중의 의지
38	1932.10	웨 그 말을 하였든가(조종현) 귀향소감(李鐸)	웨 그 말을 하였든가: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서운함 귀향소감: 어려운 농촌생활
39	1932.11	전원에 드는 가을(趙宗玄)	전원생활의 즐거움
40	1933.1,2	없음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①임에 대한 정한의 표출 ②역사 회고 ③농촌의 정취 ④思鄕 ⑤삶에 대한 성찰과 각오 ⑥신의에 대한 성토 ⑦이별의 정한 ⑧계절 예찬 ⑨귀전원과 정감 ⑩일상의 정감 등이다. 또 게재 현황을 보면 1926년 창간호에서부터 등장하여 폐간호까지 꾸준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문예란에 현대시에 비해 작품수가 많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신문화의 영향으로 현대시가 지배적이었다. 다른 하나는 시조의 작가군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산출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에서 우리의 시조를 충분히 향유할 사회적 환경이 조성

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의 자료에서 살피듯이 일제 강점기가 진행될수록 우리 시조의 작가군이 줄어가고 있었다. 물론 한때 시조 부흥론으로 인해 시조의 창작이 활발해지고 시조가 다시 주목받은 적이 있었지만 동광의 자료에 근거할 때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시조의 작품수와 작가가 점차 줄어가는 것을 살필 수 있다.

2. 시조의 내용적 특성

작품의 내용을 분류할 때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먼저 작품 중에 특정 내용이 많은 수량적 준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당대의 보편성이나 작가들의 지향성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특수성에 준거를 들 수 있다. 즉 일상적인 소재나 한담이 아니라 그 시대성을 반영하거나 그 작가에게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정감이나 미감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동광의 시조 가운데 수량적으로 많이 다룬 주제를 주목하였고, 다른 하나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상을 고려할 때 당대에 추구하고자 했던 의식의 관점에서 내용을 분류해 보았다. 그리하여 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농촌의 정취와 귀전원의 정감이며 후자의 것이 역사회고이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하였다.

1) 농촌의 정취

물항내 몸에 감고 소먹이는 아이떼들
산마다 록음속에 추천 언제 매었고나
이따금 줄에 올ㄹ아선 내릴줄을 모르네

긺날을 길다않고 매화열매 익어가네
훗훗한 땅김받아 보리한창 네 익느냐
들마다 구수한 냄새 감추지를 못하네[6]

'물 향기를 몸에 감다.'라는 공감각적 표현과 '녹음 속에서 그네 뛰는 소먹이는 아이들'이라는 시각적 표현을 통해 평화로운 농촌의 정경을 감각적으로 그려내었다. 특히 '구수하게 익어가는 보리냄새'라는 후각적 표현은 정감서린 농촌의 모습을 꼭 집어 표현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작자는 감각적인 표현에 탁월하다. 이 시조에 '물향내', '구수한 보리냄새', '훗훗한 땅김' 등의 표현은 농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농촌의 독특한 정취의 정곡을 찌르는 시어들이다. 동시에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추억을 갖고 있다. 한편 시조의 배경은 녹음 속에 그네를 타고, 매화가 익어가며, 들판에 보리가 영글어가는 초여름이다. 1927년 당대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처럼 농촌의 정겹고 평화로운 정경을 시조를 통해 담아내었다. 1930년대『東光』의 시조는 농촌을 주 배경으로 그와 관련된 정취를 읊조렸다. 이는 당대의 지배적 정서가 여전히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전개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역시 농촌 가을의 정경과 정감을 그려내고 있다.

옥수수 여믈 든다 초가을 따순볕에
올베도 익어간다 어제 오늘 달려진다.
밭귀에 거니는 마음 내만이리 기쁜가

곡식 이한톨 이대로 피요 땀을
피, 땀 흘린 이가 거둘가 내 몰라라
해마다 바뀌어 오면 달은 중정 먹하데

일 년 열두 달을 어느 날에 손, 발 재우려
자나깨나 주야걱정 농사지을 마음뿐이
애써서 벗오론 농사 제 못 먹고 말다니

6) 한국학문헌연구소편, 이은상, 「五月」,『東光』13호, 아세아문화사, 1977, 578쪽.

없고 볼작시면 애써 번 것 모다 헛것
타작 마당에 불틔 날 듯 날려간다
것차다 우리네 정상 이러함네 그리여[7]

생산자와 농산물을 소유하는 자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작자는 부당한 현실을 알고서 표현상으로는 이런 현실을 묵인하는 듯 하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소작농의 비애가 묻어난다. 위의 시조는 1932년 11월에 게재된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가을걷이가 끝나면 풍족하고 즐거워야 한다. 하지만 이 시조는 이와 상반된 현실과 궁핍한 생활을 서술했다. 즉 주야로 농사일에 애를 썼지만 주인에게 도지를 주고 씨앗 값과 품값을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때문에 배불리 먹지 못한다. 그래서 '애써 번 것 모다 헛것'이라는 표현이 당대 농촌의 궁핍한 현실을 직서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경생활을 여전히 영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東光』의 시조는 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담아내었다.

한편 이은상의 1927년에 창작된 시조와 조종현의 1932년에 지은 시조는 형식상 어떤 특징을 가질까? 1차적으로 작가의 특성과 지향의 차이를 드러내겠지만 동시에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즉 1932년대의 시조가 사회문제에 좀 더 밀착하여 논리적이며 독자에게 설득력을 강구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1930년 이전의 시조가 감성적이고 느낌에 충실한 표출이 강했다면 이른바 1930년 이후 2기의 시조는 사회적인 현상이나 심층적인 인간 현상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따라서 김동준이 지적한대로 2기는 1기와 다른 시조의 특징을 드러낸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東光』에 그려진 농촌에 관한 시조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드러낸다. 먼저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정감서린 농촌의 정경을 읊조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작농의 궁핍한

7) 趙宗玄, 「전원에 드는 가을」, 『東光』 39호, 524쪽.

생활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농촌 현실에서 가난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작자의 염원을 반영한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의 조선 농촌의 고단한 현실과 평화로운 정경이라는 양면을 시조로써 직서한 것이다.

2) 귀전원과 정감

1930년대는 전원에 돌아가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사회학에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는 그런 현실의 반영으로 시조에 드러난 귀전원의 현상을 탐색하려 한다. 특히 도시에서 가능성을 열어보는 내용보다는 전원으로 돌아가 호적하고 낭만적 정취를 즐기려는 염원을 노래한 시조가 이 시기에 많았다. 이런 귀전원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당대의 사회현상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개괄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도시에서 성취할 요소가 작거나 좌절된 경우이고, 나머지는 고향에 돌아가 조상의 유업을 잇거나 심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춘원 이광수가 지인인 權九玄이 충북 영동으로 귀향하려 하자 다음과 같은 시조를 선물했다.

> 전원에 가는 것을 옛일이라 하지마소
> 전원은 천만년에 인생의 보금자리
> 그대여 먼저가시오 나도 따라 가리다.
>
> 그대는 크로폴킨을 좋아 하시나잇고
> 나는 톨스토이를 좋아하옵네
> 그대나 내나 다 오늘의 사람은 아니로세
>
> 전원에 가시거든 하옳일이 많을 것이

낙대 들이우면 고긴들 아니 물리
고기는 아니물더라도 물빛보려 하노라[8)]

1932년 2월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權九玄을 전송하며 읊은 것이다. 전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득한 동양 역사의 문화현상이었다. 도연명의 귀거래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사림의 귀향 문화가 이를 대변한다. 때문에 權九玄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유풍을 따르는 옛일이며 지금 현실의 일인 것이다. 그리고 전원에서 낚시를 드리우고 자연의 정취를 즐기는 것 역시 귀향자를 전송하는 예비 귀향자들의 동경이며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 시조는 바로 오랜 동양의 문화가 당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1930년대 흐름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전원파'라 일컫는 전원에 대한 예찬을 노래한 작품들이 한 축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널리 알려진 '남으로 창을 내겠소'(김상용), '여우난 곬족'(백석),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신석정) 등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조 역시 이런 시대상을 담아내고 있다. 이런 것이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은 전원이야말로 각박한 현실에 대한 안식처이며 위안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음 역시 이런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기 1)
갑없는 풀은 산이 지나새나 벗이로다
버들숲 煙氣 짙어 산어구를 가리웟네
塵世의 숨찬 바람이야 드릴 길이 잇으랴

(기 3)
울밑에 국화 캐어 포기포기 심노매라

8) 이광수, 「전원에 가시는 이」, 『東光』 30호, 493쪽.

비 개인 이 아츰엔 흙냄새도 향긔롭네
십년간 나돌든 이 몸 다시 산가 하노라[9]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시의 先景後情의 작법을 따르고 있다. 1930년대가 일제 강점기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지향을 문학에도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 시조는 여전히 감성적이고 느낌에 충실한 이른바 1930년 이전의 1기 시조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시조의 특성에 관한 시대 구분이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1930년 이후 시조에는 전대에서 찾을 수 없는 시조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이 시조의 초장에서 푸른 산과 산 어귀의 모습을 묘사하고 탈속적 정취를 노래했다. 종장에서 도연명의 '採菊東籬下'의 배경과 정착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역시 전원에서의 정취와 낭만을 노래했다. 1930년대 전원 문학의 모습이 시조로도 드러나고 있다. 굳이 현대시가 아니라도 일제 강점기 귀전원의 현상을 시조를 통해 역시 나름의 정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3) 역사 회고

조선 사람은 여전히 일제에 동화될 수 없고, 신민화를 희망하지 않았다. 『東光』은 계몽과 문화를 추구하던 잡지였다. 따라서 잡지의 발행 의도 중에 조선인의 자존감 회복과 역사의식을 정립하고자 한다. 비록 한일합방 이후 16년이 지났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기개와 충정을 다시금 일깨워 보고자 했다. 『東光』의 시조 역시 이런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고시조 二首
綠馴霜蹄 살지게 먹이어 시냇물에 씻기어 타고

9) 太白山人, 「山居雜詠」, 『東光』 26호, 603쪽.

龍泉雪鍔을 들게 갈아 둘어매고
丈夫의 爲國忠節을 세워볼까 하노라.
고려 최영

長白山에 旗를 꽂고 豆滿江에 말씻기니
썩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어찡다 凌煙閣 上에 뉘 얼굴을 그릴꼬[10]
이조 김종서

『동광』에 고시조를 게재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에도 전승할만한 사상이나 가치를 구현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다분히 충절을 강조하고 대범한 기상을 예찬한 것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반어적으로 보면 그만큼 다수의 조선인이 현실에 의기소침해 있다는 것이며, 충절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제의 통치가 오래 될수록 충절이 약하고 투쟁이나 저항의 의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시조는 반어적으로 위국충절과 호연지기를 노래했다. 비록 일제 강점기이지만 우리 조상이 지녔던 충정과 호쾌한 기상을 되새겨 한민족임을 되새기려 했다. 그리고 여전히 국권회복의 가능성을 갈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동광은 민족지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역시 송도를 기행하던 이탁은 「선죽교」, 「만월대」, 「채하동(彩霞洞)」, 「화담(花潭)」 등 역사적 유적지를 읊조렸는데 그 중 「선죽교」를 본다.

님의 피 재인 돌을 말없이 만지노라
아직도 더운 김이 하마 손에 스미는 듯
돌 아레 흐르는 물은 목에 인 듯 하여라[11]

10) 『東光』 6호, 「古時調」, 344쪽.

정몽주의 충정을 되새겼다. 지금도 선죽교를 흐르는 물이 이를 애도한다는 표현은 '조국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동광』에서 가장 많은 시조가 역사 회고에 관한 것이다. 이는 역사에 대한 허망함을 전제한 민족애를 노래하고 있다.

二
城 쌀 때 푸른 풀잎 이제 다시 또 푸렀나
오백년 긴긴 해를 피고피고 또 폇다만
단걸음 가옵신 님은 어이 올 줄 모르는가

三
헐어진 城 지위에 감자 심는 저 할머니
감잘랑 심으세도 내 흉일랑 보지맙소
----------한숨아니 지리까[12]

근정전 앞을 두고 뒤 門 좇아 들어가니
진흙 속에 묻혀 놉은 무심한 돌해태야
오백년 거룩한 꿈을 너는 알까 하노라[13]

3
이 종이 울어울어 한을높이 크게울어
삼천리 울렷스면 이내마음 시원하리
애달프다 입을 담을어 몇몇 해나 사신고[14]

---

11) 李鐸, 「선죽교」, 『東光』 30호, 493쪽.
12) 趙宗玄, 「城北春懷」, 『東光』 17호, 288쪽.
13) 詩牧, 「古宮短詠」, 『東光』 15호, 92쪽.
14) 趙宗玄, 「보신각종」, 『東光』 23호, 271쪽.

성터에서 조선 왕조를 회상했다. 그리고 탄식과 무상감을 피력했다. 한편 박미영이 지적한 것처럼 본문을 분석할 때 작자의 의도와 선택한 양식 등의 특징이 작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이 문학비평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의미규정에 중요하다. 이것은 본문 내의 지시적인 문맥에 의해 본문 외적인 문맥을 유추해가는 작업으로 가능하다. 논의하는 樣式의 선택에서 일차적으로 작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논의 전개 방식, 용어를 사용하는 태도, 글쓰기 방식 등 내용 외적인 문맥 즉 자료가 지니는 외형적인 특징에서 알 수 있다.[15] 이런 맥락에서 趙宗玄 '城北春懷'의 종장에서 밑줄로 감정을 처리한 것은, 기존의 시조에서 찾기 힘든 파격적인 표현법이다. 기존에 대체로 탄식어구 '어즈버', '~하다' 등과 같은 표현법이 일반적이었지만 고조된 감정을 밑줄로 처리한 것은 시조의 변신이다. 이런 표현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또는 이 시조에서만 사용했는지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 돌에 묻힌 해태는 망한 왕조의 모습을 매우 적절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일제 강점기의 회고 시조는 형식면에서 평시조의 형식을 준용했지만 내용면에서 절박감을 읽어낼 수 있다. 과거의 시조가 음악성이 두드러졌다면 이때의 시조는 내용면에서 절박하고 애끓음을 토로하여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城北春懷'의 밑줄이라는 기호의 표출은 이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울지 못하는 보신각종은 당대 민중의 모습이다. '애달프다'라는 표출은 당대 현실과 민중의 처지를 압축적으로 제시한 말이다. 이처럼 역사 회고 시조가 많다는 것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반감을 전제한 것이며 독립회복의 염원을 표출한 것이다. 비록 일제 강점기임에도 시조라는 짧고 친숙한 장르를 통해 당대인들의 염원을 드러내었다.

15) 박미영, 『한국시가론과 시조관』, 박이정 2006, 576쪽.

Ⅲ. 결론

일제 강점기 시조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일환으로『동광』에 게재된 시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1930년을 전후하여 이른바 1기 시조와 2기 시조와의 차별성을 살피려 했다. 또 다양한 내용 중에서도 당대의 특징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동광에 게재된 시조는 비교적 꾸준히 게재되었는데, 작가군의 폭이 넓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시조 작가가 점차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또 내용면에서 비록 일제 강점기라는 제한과 검열이 존재했음에도 상징을 통해 국권회복의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일제 강점기 시조의 내용 중에서도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두드러진 주제를 요약해 보면 농촌의 정취, 귀전원과 정감, 역사회고 등이다. 먼저 동광에 그려진 농촌에 관한 시조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즉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정감서린 농촌의 정경을 읊조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작농의 궁핍한 생활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농촌 현실에서 가난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작자의 염원을 반영한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 농촌의 고단한 현실과 순박한 정경을 시조로써 직서한 것이다. 특히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농촌의 정취를 명쾌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1930년 2기의 시조는 1기와 달리 논리적이고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때문에 1기의 음악적 요소나 감성적 토로보다는 스토리를 전달하고 공감을 획득하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1930년대 전원문학의 현상을 시조에서도 역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귀거래의 전통적인 유풍을 계승하고 전원이 주는 평강과 낭만을 구가하고자 했다. '先景後情'과 같은 한시의 전통적인 작법을 시조에 적용하여 내용 전개의 자연스러움을 도모하기도 하였고, 도연명의 낭만적 정취도 그려내었다. 마지막으로 역사 회고 시조이다. 고시조를 끌어다 우리 조상이 지녔던 충정과 호쾌한 기상을 일깨워 한민족임을 되새기려 했다. 이는 일제 강점

기에도 국권의 회복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특히 종장에서 밑줄 처리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종래에 없던 새로운 시조의 작법을 보여주기도 했다. 역사 회고 시조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반감과 역사에 대한 허무감을 전제로 민족애를 노래한 것이다. '애달프다'라는 시어는 당대를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심정을 압축적으로 대변한 것이다.

『東光』의 시조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정감과 실상을 읽어 볼 수 있었다. 시조 부흥운동이후 시조가 여전히 한 문학의 장르로서 굳건히 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東光』에 게재된 시조는 당대의 시의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동양 문학의 전통성과 정감을 여전히 발산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한국학문헌연구소편,『東光』, 아세아문화사, 1977.

2. 논저

강영미,「배재의 논리로 구축된 '시조부흥론'」,『한국시학연구』39호, 2014.

김동준,「시가문학의 연구사론」,『한국시가의 원형이론』, 진명문화사, 1996.

박미영,『한국시가론과 시조관』, 박이정 2006.

배은희,「1930년대 시조담론 고찰」,『시조학논총』38집, 2013.

이형대,「1920-1930년 시조의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고시가연구』21집, 고시가연구학회, 2008.

〈Abstract〉

A study on SiJo in Dongkwang magazine

Ahn, Yeong-Gil

This these studies on SiJo to be published Dongkwang magazine. Dongkwang magazine was published from 1926 to 1933 but in the concrete it proceeded for three years two month. It was published a little SiJo and SiJo would reflected a phenomenon of society and a character of literature. A representative characters of the Si-Jo in substance at that time was summed up three. First it described a warmth of farm village. Expecially make full use of a sensuous description expressed a landscape of farm village. Otherwise it revealed a life of austerity in farming area. Second it reflected a phenomenon of return to their home village. People who was familiar with their country loved to come back their old home. To relax their mind and body they came back home and they pursuit romantic life. Third it was a poetry of historical retrospect. Although their country was colonial situation they longed fot their country's independence. Because of this anxiety they expressed their heart by means of old sijo. Mainly using old castle, ring, historic site they revealed a hidden feelings thst they had. It was a sorrow, an eager, remembrance etc. In spite of a poor surroundings they sang hope, romance, an possibility of independence. and so SiJo reflected the phases of the times.

Key words : SiJo, Dongkwang, warmth of farm village, historical retrospect, home, reflect

이 논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16년 1월 4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심사를 하고,
2016년 1월 1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